

나날수록 커지는 기쁨 전북지부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서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마음까지 공공 얼어붙는 요즘이다. 이런 경제불황 속에서 기업의 지원은 줄어들면 개인적 차원의 봉사나 기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공 언 마음을 녹이는 건 난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일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큰 돈, 큰 선물 대신 내가 가진 약간의 능력으로 아웃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봉사든 기부든 조금 출발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의료봉사처럼.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아랫줄 다섯 번째부터 박도홍 전북지부 사무국장, 강성귀 지부장, 인보노인복지관의 이은선수녀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표 10-17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결핵사업을 해온 데에는 크리스마스 쉼 모금액이 큰 밑거름이 된 만큼 한 푼 한 푼 모아진 성금, 나눔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한결핵협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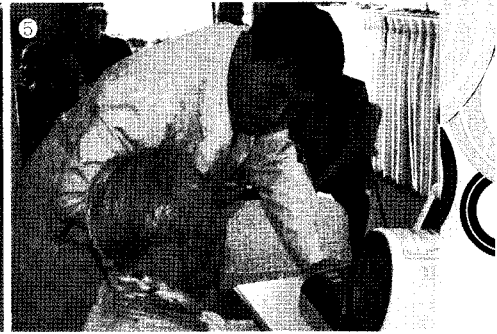
이에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강성귀)는 이번 연말 협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 방법을 고심하던 중 평소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는 의료봉사를 계획하였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의료봉사와 함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지난 12월 18일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낮잠을 달콤하게 해줄 베개 30여 채와 간식으로 드실 과일을 준비해 인보노인종합복지관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행정지원팀 김홍석 님.
실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복십자의원 송희숙 차장.



채혈을 하고 있는 검사사업팀 이이션 대리.



혈압을 체크하고 있는 검사사업팀 이형기 팀장.

인보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의료봉사를 위해 전북지부 직원들이 찾은 곳은 가톨릭 전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인보노인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인 이곳에는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 30여 분이 복지관이 운영하는 차로 이동해 점심식사도 하고, 공예나 각종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며 낮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복지관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100여 개를 집집마다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식사시간이 되면 더욱 분주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직원 10여 명은 이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머물고 계신 인보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오전 시간 동안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복십자의원 의료진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채혈, 혈압,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동검진차량을 통해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분들이고 간혹은 90세 이상 되는 분들도 계셨는데 연세가 많기도 하지만 지병으로, 장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검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마음을 다해 검진을 실시하고, 거동을 도와드리는 등 시종일관 분주한 모습이었다.



의료진을 제외한 직원들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90인분의 점심 도시락 배달을 준비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70여 명의 식사를 때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만들어진 반찬들을 도시락에 나눠담고, 70여 명의 식사준비와 다음날 음식 준비를 위한 밀가루반죽, 시금치다듬기, 멸치 다듬기를 도맡아 하면서도 밝은 모습의 직원들. 그래서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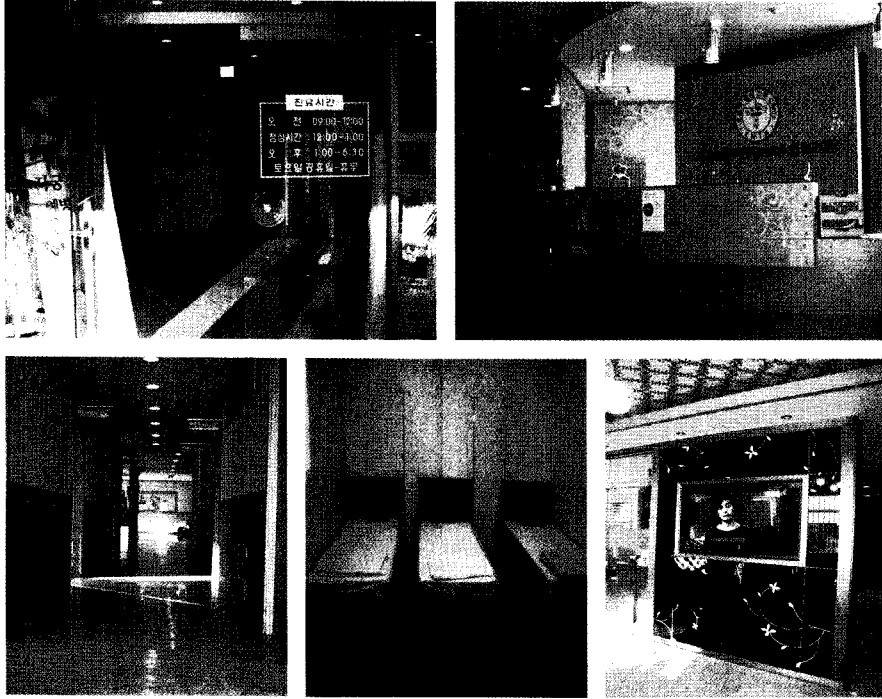
오전 내내 준비한 점심식사와 검진이 종료되고, 그날의 설거지와 다음날 식사준비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약속한 시간을 훨씬 지나치고 있었다.

병원과 사무실에서 각자의 업무에 쫓기다보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에게 이날 하루의 일정은 체력 소모가 뒤따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큼 부자가 되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공감한 하루였다. †



⑦ 배식 및 도시락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정희 팀장, 조연순 차장과 박노홍 국장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식사를 들고 있는 복심지원원 김은아 님, 김혜란 님.
 ⑧ 엑스레이 촬영을 들고 있는 류기현 대리.

우리협회 전북지부는...



1958년 6월 10일 창설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강성귀)는 1983년 부설 복심자의원이 문을 열면서 명실공히 전북도내 난치성결핵환자 진료 및 국가 결핵퇴치사업의 중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복심자의원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감행했다. 리모델링 후 몰라보게 달라진 실내는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거듭났다. 특히 동선을 고려한 공간배치는 직원들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